

적용대상 헷갈리면 무조건 더치페이

김영란법 꼭 알아야 할 10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3·5·10만원’ 기억하세요

골프 접대는 항응 무조건 안돼

부인 금품 수수도 신고 대상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요=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료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 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돼요=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료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항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헷갈리면 ‘더치페이’ 하세요=‘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한 북구 공무원들이 청렴에 관한 문제의 답을 들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외도 양벌규정 적용=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 하세요=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으세요=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 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 받을 수 있어요=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주요 예시

Q 아버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예편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는 경우



A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아들은 모든 상태대로 제재 대상 아님.
-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군의관은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

Q 국립대 병원 임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임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A -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

Q 지자체 지체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경평가사로부터 150만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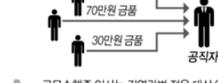
A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무원과 강경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 대상

Q 초등학교 동창인 재택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재택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A - 회사와 공기업에 직원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위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님.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에 회계연도 300만원(미만일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Q 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탄저성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술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A - 공무원행동 강령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임.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받았지만 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건설사 직원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

Q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A -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김영란법은 시행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료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허용되지 않음

학부모가 간식 돌려도 법 위반

권익위 매뉴얼로 본 사례들

앞으로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공직자
- 공공기관 청렴도를 살피는 공무원과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직원이 막대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직원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는다.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법 위반인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면 법 위반인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공공기관·공직자
- 공공기관 청렴도를 살피는 공무원과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직원이 막대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끝낸 뒤 함께 일한 변호사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 인허가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인사 동기 사무관 직원과 함께 사람이 식사를 하고 A씨가 8만원을 결제했다.
- 직무부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 접대 3만원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벨상 가장 유력한 한국 과학자 영광 출신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국내 기초과학 분야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선정한 노벨상 수상이 가장 유력한 한국인 후보로 영광출신 김빛내리(사진) 서울대 석좌교수(IBS 연구단장)가 선정됐다. 김빛내리 교수는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큰 한국인 연구자로도 예측됐다.



크로 RNA (miRNA) 분야를 연구해 온 김빛내리 교수(생리의학 분야)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어 화학 분야 유희영 KAIST 교수(IBS 연구단장)가 두 번째로 수상 가능성이 큰 후보로 꼽혔다. 이밖에 김필립 미국 하버드대 교수(물리), 임지순 포스텍 석좌교수(물리), 현택환 서울대 교수(IBS 연구단장)(화학) 등이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큰 한국인 후보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실종 당시 심정계이트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뺨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끈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체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정도 제대로 못주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송부
010-3598-708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 11평 ▶ 감정이 2억9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진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2003년식) ▶ 감정이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이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방출음 ▶ 감정이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 ▶ 감정이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좋음 ▶ 감정이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좋음 ▶ 감정이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점 상업지역 대지32평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역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